

대학생의 근로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Working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김경범*, 이주현*, 최효진*, 최민재*, 권영대**, 노진원*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의료경영연구소**

Kyoung-Beom Kim(aefile01287@gmail.com)*, Juhyun Lee(jhyun290@gmail.com)*,
Hyojin Choi(hjtn08@hanmail.net)*, Minjae Choi(steponchoi@gmail.com)*,
Young Dae Kwon(snukyd1@naver.com)**, Jin-Won Noh(jinwon.noh@gmail.com)*

요약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 졸업유예, 취업단념과 같은 청년실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수가 취업준비 동기를 촉발하는지를 반복측정 자료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YP2007의 3~5차 연도인 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에 적용한 대상은 남성 3,481명, 여성 3,770명이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지트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적 요인과 인구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 및 훈련 여부, 진로지도 상담 유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부,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연령, 가구 총소득의 변동은 취업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으며, 각 요인 간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층의 근로참여 동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 | 근로참여 | 직무영향 | 구직준비동기 |

Abstract

Today, Competition in employment among the youth is more intensified and this phenomena lead to youth unemployment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ound the influence of youth employment effort on labor participation. We studied what variables could affect motiva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especially among undergraduate and graduated students.

We used 3rd~5th(2009~2011) 'Youth Panel Data' designed by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Data we adjusted were male(3,481) female(3,770). We applied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to Panel logit model. We found that job education and training, career guidance, job shadowing program, getting new certification, sex, age and change of gross income affected employment preparation with controlling education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This study found the effort of employment preparation was significant impact on labor participation and showed an influence on each variable empirically. We suggest that the youth-unemployment problem there is a need to approach fundamental aspects.

■ keyword : | Labor Participation | Job Influence | Motiva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

I. 서론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함에 따라 산업 간, 산업 내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고학력자와 고숙련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2012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증가의 87.7%는 40~50대 연령층이었으며, 특히 기술적 숙련도가 중요한 제조업의 경우 청년층의 상용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40~50대는 5.9% 증가 추세를 보였다[2]. 대학진학률은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7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고학력자의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3].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인력부족 확대 추세, 청년층 유휴인력의 확대 추세, 낮은 고용률 등이 있다[3]. 이 중에서도 청년 유휴인력의 확대와 같은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정부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해왔다.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 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4-6].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었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7]. 최근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15~29세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약 0.1% 감소하였으나 학력별 실업률에서 상승을 보였다[8]. 청년취업자(15~29세)의 근로형태를 대졸 이상의 집단이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상용근로자 감소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9]. 지속적인 청년층의 전반적인 고용사정 부진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의 원인은 주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7]. 또한,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 등도 문제가 된다[10]. 반면, 노동 공급적인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니트족(NEET)의 증가를 보는 연구도 있다[11]. 니트란 교육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일을 하지도 않는 상태이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니트족은 보통 활발하게 직업을 구하는 구직 니트족과 구직행위를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족으로 구분한다[12]. 이 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비구직 니트족은 2011년 1월에 100만 명을 넘었다.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쉬었음'으로 2010년의 경우 34.9%(34만 8천 명)가 일을 찾지 않았다[13]. 이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며,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시기에 약 35만 명의 청년들이 아무런 취업준비 활동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청년니트족의 노동시장 진출은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uropean Foundation의 보고서는 니트족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향후 낮은 취업률 예측, 사회적 불안과 불만족 등이 야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족이 경제적으로 유럽 GDP의 1.2%에 상응하는 약 1,530억 유로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14].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정부의 프로그램 및 교육의 실시 여부보다는 개인의 수용 및 참여 여부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5][16]. 이에 본 연구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근로 참여 의지와 취업준비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다수의 청년층에게 일률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집단별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고용개선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조사(YP 2007)의 3~5차 연도인 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층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 등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1차 프로젝트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는 당시 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단위 패널조사(YP2007)이다. YP2007은 최초 조사년도인 2007년 청년층 10,206명을 최초 패널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각각 2008년에는 9,310명, 2009년 8,830명, 2010년 8,335명, 2011년에는 8,053명의 표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마지막 조사년도인 2012년에는 7,843명의 표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최초 조사년도 대비 약 76.8%의 표본 유지율을 기록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YP2007의 3차 ~ 5차 연도(2009~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연도의 조사 대상자 중 본 연구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초·중·고등학생 및 취업자 등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만을 추출하여, 2009~2011년 각 연도별로 2,384명, 2,407명, 2,46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심의인준을 득하였다(EU 14-35).

2. 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가용한 표본의 수 및 변수의 설명력 정도를 고려하여 실증적인 연구 고찰을 위하여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대학(원)생의 근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취업준비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대상자의 근로참여의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청년패널조사 설문지의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색션의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준비한다.' 혹은 '준비하지 않는다.'의 이분형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독립변수로는 인구경제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인구경제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 총 소득 변수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는 시·도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역과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총 소득은 연간 가구의 총 소득을 만원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4분위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적 요인에는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 해외연수 경험, 진로지도 상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평균 학점 변수를 포함하였다. 직업교육 및 훈련은 취업, 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단순 취미활동에 목적을 두는 경우, 정규 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 수강 및 과외, 공무원 및 공사, 고시 등을 위한 시험 준비는 제외하였다. 해외연수 경험은 유학, 연수(교육), 교환학생, 국내 및 현지 취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험을 말하며 출장, 여행은 제외하였다. 진로지도 상담은 전공 선택, 진학, 취업 및 이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을 말한다. 개인상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상담, 직업진로 관련 체험학습, 심리검사, 직업 및 진로관련 동영상 시청, 진로지도 관련 전문가 강의 등이 포함된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수습, 연수, 인턴제 등을 포함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말하며 정부지원 직업체험연수, 정부지원 인턴 혹은 취업지원제, 민간기업 인턴제 등이 있다.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제자격증, 민간자격증이 해당된다. 운전면허증은 1종 대형과 특수면허만 자격증 취득에 해당된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평균 학점을 $A^- \sim A^+$, $B^- \sim B^+$, $C^- \sim C^+$, $D^- \sim D^+$, F 의 5가지 단계로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 , B , C^+ 이하 학점의 3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기존 관련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적 평균치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인과적인 결론을 이

끌어내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패널자료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은 정규분포에서 이탈하는 다변량 변수에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GLM)을 적용한 것으로, 일반선형모형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일반선형모형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범주 또는 연속형 종속변수에 대한 군집(cluster)을 이루거나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을 행하는 자료 등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18]. 청년패널조사 자료는 전형적인 반복측정 자료로,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구축된 패널자료이다. 패널자료의 독립변수는 그 값이 측정 시점마다 변하는 시간 종속적인 변수(time dependent variable)이다. 즉, 독립변수의 가변성과 측정의 반복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에 일반화 선형모형이나 다변량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추정의 효율성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19].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모든 통계적 처리는 STATA 12.0(StataCorp LP,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양측 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별 근로참여의지 여부

각 연도별 대상자는 2009년 2,384명, 2010년 2,407명, 2011년 2,460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 대학(원)생들이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p < 0.01$, OR:1.25, CI:1.07-1.47). 남자에 비해 여자가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p < 0.001$, OR=1.39, CI:1.21-1.61). 교육적 요인에서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경험($p < 0.001$, * OR=4.59, CI:3.09-6.83), 해외연수 경험($p < 0.001$, OR=2.72, CI:1.97-3.75), 진로상담 경험($p < 0.001$, OR=2.66, CI:1.97-3.75),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p < 0.001$, OR=4.23, CI:2.93-6.13), 자격증 보유($p < 0.001$, OR=2.94, CI:2.44-3.54)에서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점 평균은 C 이하인 집단보다 평균 B($p < 0.01$, OR=1.59, CI:1.20-2.10), 평균 A인 집단($p < 0.001$, OR=2.14, CI:1.60-2.88)순으로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p < 0.001$, OR:0.76, CI:0.74-0.78). 가구 총 소득은 소득 수준 1사분위에 비해 2사분위($p < 0.01$, OR=0.75, CI:0.62-0.91), 3사분위($p < 0.01$, OR=0.76, CI:0.63-0.92), 4사분위($p < 0.01$, OR=0.76, CI:0.63-0.92) 순으로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참여의지 여부에 따른 요인별 로지스틱 GEE 추정

		N(%) / Mean±SD			Odds Ratio	95% CI	
		2009	2010	2011			
Survey year	2009	2,384(32.9%)			ref		
	2010		2,407(33.2%)		1.11	0.96	1.30
	2011			2,460(33.9%)	1.25**	1.07	1.47
Sex	Male	1,137(47.7)	1,125(46.7)	1,219(49.5)	ref		
	Female	1,247(52.3)	1,282(53.3)	1,241(50.5)	1.39***	1.21	1.61
Age		23.5±2.8	23.6±2.5	23.6±2.4	0.76***	0.74	0.78
Family gross income	1st quartile	511(28.5)	455(24.5)	380(20.7)	ref		
	2nd quartile	445(24.8)	471(25.4)	407(22.1)	0.75**	0.62	0.91

	3rd quartile	433(24.1)	463(25.0)	467(25.4)	0.76**	0.63	0.92
	4th quartile	405(22.6)	465(25.1)	585(31.8)	0.76**	0.63	0.92
Career education							
	No	2,332(97.8)	2,379(98.8)	2,437(99.1)	ref		
	Yes	52(2.2)	28(1.2)	23(0.9)	4.59***	3.09	6.83
Study abroad							
	No	2,313(97.0)	2,345(97.4)	2,399(97.5)	ref		
	Yes	71(3.00)	62(2.6)	61(2.5)	2.72***	1.97	3.75
Career counseling							
	No	2,080(87.3)	2,133(88.6)	2,242(91.1)	ref		
	Yes	304(12.8)	274(11.4)	218(8.9)	2.66***	2.24	3.15
Employment training program							
	No	1,244(97.3)	1,428(96.9)	1,432(97.5)	ref		
	Yes	35(2.7)	46(3.1)	37(2.5)	4.23***	2.93	6.13
Certification							
	No	2,180(91.4)	2,183(90.7)	2,262(92.0)	ref		
	Yes	204(8.6)	224(9.3)	197(8.0)	2.94***	2.44	3.54
GPA							
	Less than C+	208(11.7)	180(9.9)	231(12.3)	ref		
	More than B- Less than B+	1,064(59.7)	1,119(61.7)	1,128(59.9)	1.59*	1.20	2.10
	More than A- Less than A+	511(28.6)	514(28.4)	524(27.8)	2.14**	1.60	2.88
Residence							
	Capital area	1,213(50.88)	1,192(49.52)	1,240(50.41)	ref		
	Non-metropolitan	1,171(49.12)	1,215(50.48)	1,220(49.59)	1.00	0.87	1.15
Employment preparation							
	No	2,018(84.7)	2,050(85.2)	2,096(85.4)			
	Yes	364(15.3)	355(14.8)	359(14.6)			
* $p < 0.05$, ** $p < 0.01$, *** $p < 0.001$							
GPA(grade point average), ref(reference), CI(confidence interval).							

2. 근로 참여 의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연도, 성별, 나이, 가구 총 소득, 직업교육 훈련, 진로지도 상담, 직업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보유 유무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9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2010년; $p < 0.001$, OR=1.72, CI:1.32-2.25), (2011년; $p < 0.001$, OR=3.68, CI:2.73-4.97), 여자인 경우에 ($p < 0.001$, OR=2.80, CI:2.10-3.72), 진로지도 상담을 받았을 때($p < 0.001$, OR=3.32, CI:2.57-4.29),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p < 0.001$, OR=3.34, CI:2.06-5.41),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OR=2.32, CI:1.75-3.08), 직업교육

훈련을 받았을 때($p < 0.001$, 을 때($p < 0.01$, OR=2.88, CI:1.43-5.79)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p < 0.001$, OR=0.63, CI:0.59-0.67). 가구 총 소득이 1사분위에 비해 4사분위일 때($p < 0.01$, OR=0.70, CI:0.53-0.92) 취업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에 해외연구 경험 유무, 평균학점, 거주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표 2. 취업준비활동에 따른 근로참여의지의 로지스틱 GEE 추정

		Odds Ratio	95% CI
Survey year	2009	ref	
	2010	1.72***	1.32, 2.25
	2011	3.68***	2.73, 4.97
Sex	Male	ref	
	Female	2.80***	2.10, 3.72
Age		0.63***	0.59, 0.67
Family gross income	1st quartile	ref	
	2nd quartile	0.93	0.70, 1.24
	3rd quartile	0.87	0.65, 1.15
	4th quartile	0.70**	0.53, 0.92
Career education	No	ref	
	Yes	2.88**	1.43, 5.79
Study abroad	No	ref	
	Yes	1.41	0.91, 2.19
Career counseling	No	ref	
	Yes	3.32***	2.57, 4.29
Employment training program	No	ref	
	Yes	3.34***	2.06, 5.41
Certification	No	ref	
	Yes	2.32***	1.75, 3.08
GPA	Less than C+	ref	
	More than B- Less than B+	1.34	0.88, 2.04
	More than A- Less than A+	1.26	0.81, 1.96
Residence	Capital area	ref	
	Non-Metropolitan	1.16	0.93, 1.44

* $p < 0.05$, ** $p < 0.01$, *** $p < 0.001$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CI(confidence interval)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2009년~2011년 3개년도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근로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경제적 요인과 교육적 요

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자격증, 진로지도 상담 등 노동시장 이행 전에 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인 근로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였다.

인구경제적 요인 중 성별 요인은 김정숙 및 Gomes 등의 연구와 동일하게 근로 참여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근로참여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특성상 같은 연령층이라 할지라도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상담,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의 취업준비 기회 상실을 겪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 사회가 남성위주의 사회진출 중심이었던 반면,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인식 변화로 여성의 취업준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사회 및 직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여성의 근로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추측된다[22].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참여의지가 낮아졌는데 이는 취업이 아닌 다른 전문직 혹은 공무원 준비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취업 시기를 늦추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김태일의 연구에서는 공무원 준비 때문에 민간기업 입사가 늦어지며, 너무 늦은 경우에는 적정연령대를 벗어나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다[23]. 자신의 기대수준을 낮춰 취업준비를 하기 보다는 공무원 및 전문직자격증 준비의 기회비용이 커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 총 소득 1분위에 비해 2·3분위는 근로참여의지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4분위는 근로참여의지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4분위 가정을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취업의지의 차이는 영향이 없다는 Ehrenberg & Marcus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4]. 채창균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의 의지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5].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만 근로참여의지가 낮았는데 이는 김기현, 채창균의 연구에서 보고한, 가구소득이 높으면 투자요구와 교육 기대가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이로 인해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을 선택하여 근로참여의지가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27][28].

교육적 요인에 따라서는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지도 상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우와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 근로참여의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진로선택 시 탐색하는 것 못지않게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Duffy & Dik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6]. 직업체험 요인은 Rhoda et al의 직업체험이 근로참여, 소득, 취업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9]. 교육요인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참여와 의지이다. 김보인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로의 취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구직활동과 효능감을 보이며, 이에 따라 대학에서 행정적으로 강화하여 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0].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훈련이 타의적인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노동시장 진출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들의 연도별 제한으로 인하여 3개년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최초 패널 시작 연도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확인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3개년 도에서 연구 대상자인 대학(원)생만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요인 간의 비교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과 근로 참여 의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각 요인 간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경제적 요인보다는 교육적 요인이 근로 참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의한 취업 준비활동 중에서도 자격증과 같은 정량자원보다는 직업교육 및 훈련과 같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근로참여의지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학점 혹은 해외연수 경험은 통상적인 취업 전 활동으로 흔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정량자원임에 불과하며 근로 참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목했던 방향이 아닌 청년층에게 있어서 어떤 취업 준비활동이 근로참여 의지와 유의한 상호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개선흐름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더욱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에 있어 청년인턴을 확대하는 방법, 기숙이 여의치 않는 청년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을 자유롭게 습득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조건을 갖춘 훈련기관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 기회 확대의 노력은 청년 노동시장을 확대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사자인 청년층의 주체적인 참여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및 수용할 수 있는 취업준비 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니트층에 있어서 그들에게 실업자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최강식, "IT혁명과 인력경쟁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14-15, 2005.
 [2] 박진희, 윤정혜,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p.1, 2012.
 [3] 이규용, 이혜정, 김동배, 전재식, 김기호, "고령화 및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p.13-27, pp.44-50, 2012.

[4] 나영선, 이남철, 고혜원,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6, 2001.
 [5] 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3, 2000.
 [6] 오만덕, 이승희, "대학생 직업소양능력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497-506, 2011.
 [7]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경제리뷰, 제2013(15)권, pp.2-9, pp.10-11, 2013.
 [8] 성재민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제 2011(1)호, pp.94-103, 2013.
 [9] 전주용, 강순희, 김미란, 남기곤, 민주홍,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동과 성과(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pp.111-115, 2012.
 [10] 김형만, 김미란, 전재식, 정재호, 신동균, 엄미정, 박재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Ⅲ)(총괄보고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pp.25-27, 2007.
 [11] 남재량, 김세음,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20-45, 2013.
 [12] 홍승현, 원종학,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12.
 [13] 남재량,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제 2011(3)호, pp.31-32, 2011.
 [14] M. Mascherini, S. Lidia, M. Anja, and J. M. Jungblut,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2.
 [15] 김영재,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 소고-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753-769, 2013.

[16]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17] 천영민, 황광훈, 양수경, 진병돈, *청년패널2007 6차(2012)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2.

[18] P. J. Diggle, K. Y. Liang, and S. L. Zeger,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9] S. R. Lipsitz, K. Kim, and L. Zhao, *Analysis of Repeated Categorical Data Using*, 1994.

[20] Gomes, Ramos and Sanchez, “Youth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Spai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20, No.2, pp.139-49, 2001.

[21] 김정숙,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40집, 제1호, pp.141-165.

[22] 나윤경, 최윤진, 장인자,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여자대학생의 변화된 취업준비와 대학의 과제: 남녀공학대학교 사례”, *교육과학연구* 제38집, 제3호, pp.141-166, 2007.

[23] 김태일, 정태영, 이기엽,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연구-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8권, 제2호, pp.159-184, 2005.

[24] R. G. Ehrenberg and A. J. Marcus, *A multinomial logit model of teenagers: School enrollment and employment outcomes*, Presented at the December Meetings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79.

[25] 채창균, “대학생의 재학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한국직업교육학회*, pp.173-182, 2001.

[26] R. D. Duffy and B. J. Dki,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8, pp.29-43, 2001.

[27] 김기현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8집, 제5호, pp.109-142, 2004.

[28] 채창균,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07.

[29] V. C. Rhoda, D. James, Wright, J Charles, and Brody,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Vol.69, pp.66-81, 1996.

[30] 김보인, *대학생의 취업비용 지불의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저 자 소 개

김 경 범(Kyoung-Beom Kim)

준회원



▪ 2008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정책, 보건통계

이 주 현(Juhyun Lee)

준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정책, 보건통계

최 효 진(Hyojin Choi)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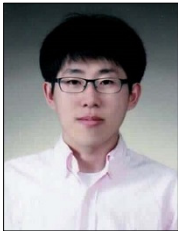


- 2014년 2월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 2014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석사)

<관심분야> : 보건정책, 의료경영, 의무기록

최 민 재(Minjae Choi)

준회원



- 2014년 2월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 2014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관심분야> : 보건경제, 의료경영, 보건정책

권 영 대(Young Dae Kwon)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의학과(의학사)
- 1998년 8월 : 서울대학교 의학과(의학박사)
- 2008년 4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의 질 평가, 의료이용분석

노 진 원(Jin-Won Noh)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경영학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생산관리) 석사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협동과정(보건학박사)

▪ 2011년 12월 : Johns Hopkins University MPH, MBA

▪ 2012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경제성평가, 병원재무회계